Q&A

결핵에 걸리면 환자들은 당혹스러워한다. 결핵이 사라진 병인줄 알았다거나 아예 어떤 병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은 증상 하나에도 예민해지게 마련. 대한결핵협회 홈페이지에 접수된 환자들의 질문과 의료진의 답변을 통해 결핵 치료의 실마리를 제공해본다. 〈편집자주〉

Q-1 집단결핵발병으로 인해서 예방화학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방화학치료의 대상이 대부분이 만 6세 미만이라고 하던데 중고생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PPD검사, X-선촬영검사, 객담검사의 진단이 어떻게 나와야 예방화학치료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또 투약을 4개월만 하면 된다는데 약은 한 가지만 먹으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1 화학예방요법은 결핵에 새로 감염되었거나 발병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아이나 단독 치료를 함으로써 발병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결핵환자의 가족 중 이전에 결핵균에 접촉되었을 가능성이 낮은 6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피부반응 검사 양성이고 흉부엑스선 검사상 병변이 없을 때 예방치료를 하게 되며 감염과 발병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그 외의 연령에서나 피부 반응 검사상 음성인 경우에도 예방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보통 아이나 단독 치료를 하지만 아이나 내성균 감염이 분명할 때는 리팜핀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2 중이염에 걸린 지 3개월째입니다. 수술을 잡고 전신마취를 위한 검사 도중 결핵이 발견되어 약을 복용한지 이틀 됐습니다. 결핵성중이염일 수도 있어서 결핵약 먹고 좋아질 수도 있겠다고 하시던데, 그런 경우 수술을 안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귀 상태가 양쪽 모두 중이염에 이명+난청인 상태거든요. 그 밖의 다른 결핵 증상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러한 치료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2 결핵성 중이염은 결핵균에 의한 중이염으로 임상양상이 일반 만성 중이염과 비슷해 조기진단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이 되면 항결핵제 치료를 하며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결핵약을 드시면서 수술 여부는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Q-3 유학중에 TB 테스트를 하고 양성반응이 나와서 이소니아지드와 비타민 B6를 5개월째 복용 중에 있습니다. 미국 의사와 상담했을 땐 9개월 동안 먹어야한다고 했는데 한국에선 6개월 동안만 먹어도 된다고 하니 어떤 기준을 따라야할지 혼란스럽네요. 간기능 검사도 해야 하나요?
저는 지금 한국에 있구요, 6개월까지 약은 있는데 만약에 9개월까지 복용해야 한다면 약은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결핵약 복용시 감기약 같은 다른 약들도 먹을 수 있나요? 미국 의사는 타이레놀은 먹지 말라고 해 두통과 편도선으로 고생하면서도 약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A-3 결핵예방치료는 보통 INH를 6-12개월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나라마다 치료대상이나 기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6개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분들의 약 2-5% 에서 간독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는데, 이는 보통 35세 이상의 연령층에 많습니다.
결핵 치료 중에도 동반된 질환을 같이 치료할 수 있으나 약제 상호 작용과 부작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약을 드실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처방 받아 약을 드시기 바랍니다.

Q-4 공중 보건에 대해 공부중인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릴 적 BCG 맞은 흉터는 있는데 성인이 되서 투베르쿨린 음성시 BCG를 다시 맞아야 할까요? 또 비말 외 섭식이나 피부 상처로 감염이 가능하다면 감염 환자와 음식을 같이 먹고도 전염이 가능한가요? 피부 상처로 감염이 된다는 것은 피부 상처에 감염 환자의 비말이 닿는다는 뜻인지, 또 감염된 환자 채혈 주시기에 의료인이 찔렸을시 같은 혈행 감염이 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A-4 우선 BCG는 다시 안 맞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파경로는 대부분 객담도말 양성 폐결핵 환자로부터 배출되는 기관지 분비물의 비말핵 전파에 기인합니다. 그 외의 전파 경로는 과거에 우형 결핵에 걸린 소에 의한 감염이 있었으나 현재는 멸균 시행으로 우유에 의한 감염이 소실되었으며 많은 살아 있는 균을 다루는 결핵균 검사소의 검사 기사나 부검을 하는 병리학자 중 상처를 통한 피부 직접 접종의 예가 보고 되었습니다.
환자가 쓰는 물건(식기, 의복, 침구, 책 등)을 통해서나 음식을 같이 먹어서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